



공군 제1전비, 광주 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1전비)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웃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광주 구 송정2동 경로당을 비롯한 지역 사회복지시설 10여곳에서 진행됐다.

장병들은 각종 위문품을 전달한 뒤,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안부와 덕담을 나눴다.

행사를 계획한 박희수 1전비 감찰안전실장은 “나눔을 통해 지역민께 행복한 어버이날을 선물해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1전비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전비는 보훈요양원 자원봉사과 환경정화, 기부금 전달 등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윤준명 기자



KT전남전북본부, 고흥서 AI 코딩 캠프 운영

KT 전남전북광역본부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고흥나로우주센터 일원서 개최된 제15회 고흥우주항공축제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KT AI 코딩 가족 캠프’를 운영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사진)

지난해 ‘KT AI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캠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된 캠프에는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 체험장을 마련해 인류가 거주할 거대 기지 ‘뉴 고흥시티 인 화성’을 주제로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가상공간인 화성에서 자율주행 차량 교구를 용도에 맞게 제작 및 코딩해 우주기지를 구축하는 시나리오로 운영됐다.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KT AI UAM KIT와 목적성 자율주행 PBV 교구를 이용해 가족과 역할을 나눠 개척용, 물류 운반용, 군사용 자율주행차 등 관심있는 차량 코딩에 참여했다.

박소영 기자



광주서부경찰-자경위,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광주 서부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는 8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녹색어머니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발대식은 유공 회원 감사장 수여 및 신임 회장 위촉장 수여 순서로 진행됐다.

녹색어머니회는 경찰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 등·하굣길 교통지도와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을 위한 캠페인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박종열 서부경찰서장은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한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호남대-전남기술과학고, 드론 인력양성 협약

호남대학교 로봇드론공학과(학과장 윤태순)는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교장 홍성희)와 지난 7일 차세대 로봇 및 드론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미래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양 기관 간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로봇 및 드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기술·정보의 상호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로봇 및 드론 장비의 공동 활용 및 공동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 교육 수행에 관한 사항 등 4가지 핵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론과 실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연계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동환 기자



광주 북부경찰-북구새마을부녀회, MOU

광주 북부경찰은 지난 7일 광주북구새마을부녀회와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PM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사고 위험도 증가해 경찰서와 북구새마을부녀회가 함께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안전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부경찰은 PM 교통안전수칙 교육·홍보활동에 교육자료를 지원하는 등 교통안전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북구새마을부녀회에서는 27개동 부녀회 회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옥자 광주북구새마을부녀회장은 “이번 협약은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광주 북부의용소방대, 어버이날 급식 봉사

광주 북부 의용소방대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북구 관내 식당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광주광역시 북구 동부시장 내 화목식당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말바우시장 전문의용소방대원 15명이 함께 참여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말바우시장 전문의용소방대는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전통시장 야간 순찰 활동 △관내 환경미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양동근 말바우시장 전문의용소방대장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가족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꼈다”며 “향후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북부의용소방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승우 기자

인사

◇3급 승진 △총무관 리처장 김영목 △정보전산원 정보개발팀장 김성주 ◇4급 승진 △총무관리처 기계전기팀장 박영태 △취업학생처 학생복지팀장 박지현 △사범대학 교학팀장 조은미 ◇5급 승진 △대의협력처 국제협력팀 강하리 △의과대학 교학팀 기빛나 △입학처 입학관리팀 운영실 △취업학생처 일자리지원팀 최화영



광주전남혈액원, 5·18 헌혈정신 계승 ‘시민헌혈’ 캠페인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혈액원은 지난 7일 옛 광주적십자병원 임시개방을 기념해 5·18 민주화운동 헌혈정신 계승 ‘시민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혈액원 직원 및 적십자봉사회 동구지구협의회 회원 등 30여명은 5.18 사적 11호로 지정된 옛 광주적십자병원 자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헌혈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 대표로 오병윤 상임행사위원장이 참석해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광주적십자병원의 활동 및 시민들의 헌혈정신을 기리는 캠페인을 격려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1974년 광주적십자병원 부설 혈액원으로 처음 시작됐으며 5·18 당시의 적십자 소식지에는 광주적십자병원에서 ‘5월21일과 22일 광주 시민들의 참여로 혈액 411병을 채혈, 부상자를 치료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혈액원은 오는 14일과 15일 전남대학교에서 ‘전남대에서 피어난 민주화,

전남대에서 퍼지는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실시한다.

광주광역시청에서 15일 5·18민주항쟁 기념과 오월정신 계승을 위한 시민헌혈 기념식이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6일에는 5.18 당시 부상자를 헌신적으로 치료한 광주기독병원(5.18사적 제10호)에서 병원 임직원 및 시민 대상으로 단체헌혈이 실시되며 17일에는 ‘45주년 5·18 민주항쟁기념행사 전야제’에서 광주전남혈액원 헌혈캠페인 부스를 운영한다.

김동수 광주전남혈액원 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총상을 입은 부상자들을 위해 수 많은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헌혈에 참여했다. 광주적십자병원 직원들 또한 열흘간 철야 근무를 하면서 부상당한 시민과 군인을 구분하지 않고 치료해 생명을 살렸다”며 “이번 오월에도 이러한 인도주의 헌혈정신이 이어지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헌혈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EBS 한강작가 다큐, 휴스턴 국제 필름 페스티벌 대상

EBS가 한강 작가를 주제로 만든 다큐멘터리가 북미 3대 영상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

EBS는 ‘한강전-그녀의 일곱 인생’이 제58회 휴스턴 국제 필름 페스티벌에서 텔레비전·케이블·웹 프로덕션 부문 최고상인 대상(Grand Remi Award)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 다큐는 한강 작가를 대표하는 7편의 작품을 통해 문학 세계를 조명하고 박찬욱 감독, 가수 최정훈, 안무가 김보람 등이 이를 재해석한 모습을 담았다.

또 호스피스 병원을 5개월간 밀착 취재한 ‘다큐프라임-내 마지막 집은 어디인가’가 롱 쇼츠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노벨문학상 수상 특집
한강전傳: 그녀의 일곱 인생

금상을 받았다.

‘다큐프라임-돈의 얼굴’과 ‘다큐멘터리 K-우리는 선생님입니다’도 각각 정보·문화·역사 프로그램 부문과 롱 쇼츠 다큐 부문에서 은상을 차지했다.

휴스턴 국제 필름 페스티벌은 1961년부터 시작됐으며 뉴욕 TV 페스티벌, 반프 TV 페스티벌과 함께 북미 3대 영상 페스티벌로 불린다.

이 시상식에서 수여하는 ‘레미상’은 에미상, 토니상과 더불어 권위 있는 문화 분야 상 중 하나로 꼽힌다. **연합뉴스**

‘태권 트로트’ 나태주, 어버이날 맞아 한국·미국 디너쇼

태권도 선수 출신 트로트 가수 나태주(사진)가 어버이날을 맞아 8일과 11일(현지시간) 서울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각각 디너쇼를 연다고 소속사 디알뮤직이 밝혔다.

나태주는 8일 오후 7시 서울 강남 라움아트센터 2층 마제스틱 볼룸에서 ‘라움 어버이날 디너쇼’를 개최한다.

그는 이날 공연에서 즉석 신청곡을 부르거나 관객과 게임을 하는 등 팬들

과 호흡하는 무대를 꾸민다.
디알뮤직에 함께 소속된 가수 강예슬과 김의영도 출연한다.

또 11일(현지시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태글리언 콤플렉스에서 ‘미스&미스터 트롯 디너쇼’를 연다.

연합뉴스